

보도

“사학과 추계답사, 갈 수 있을까요?”… 줄어든 자율예산, 대안은 ‘깜깜’

자율예산 급감의 여파

권윤지 기자 happypice2@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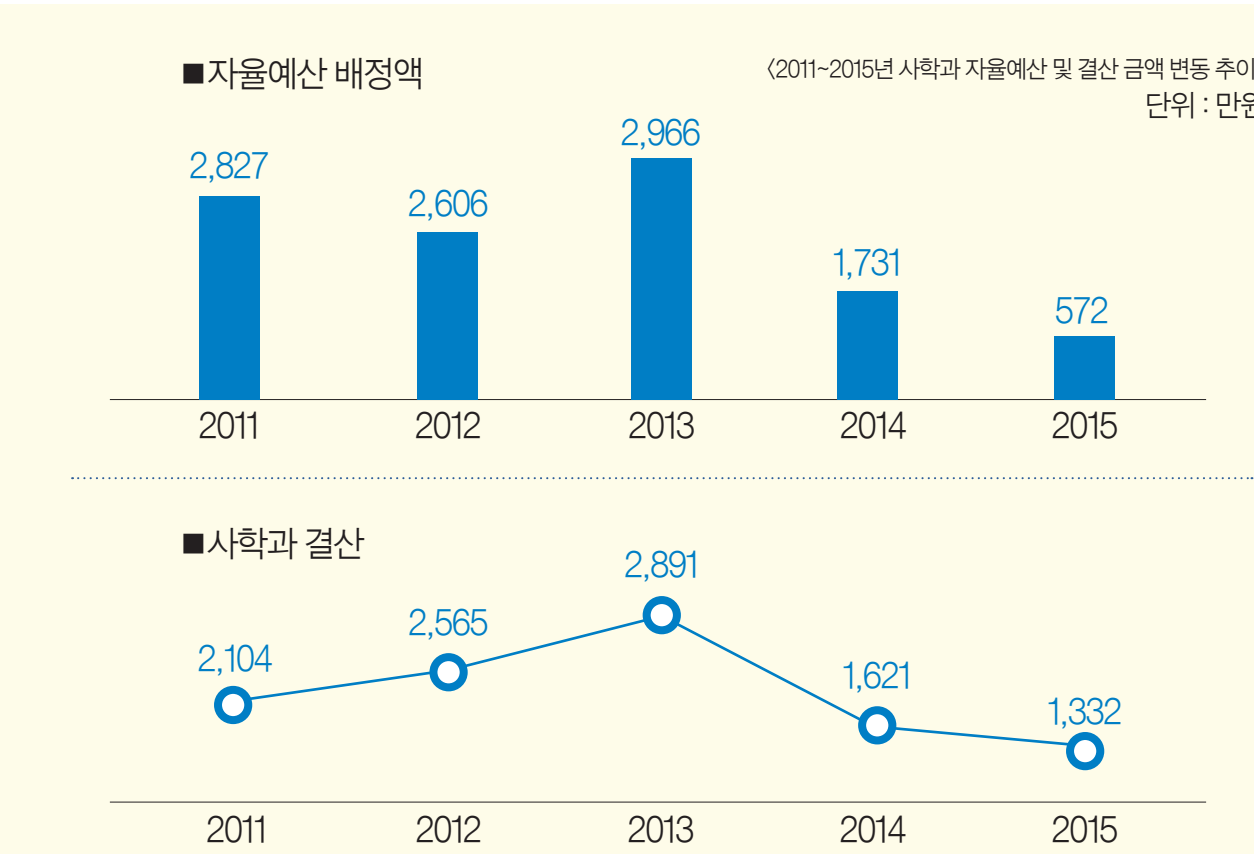
#1. **2013년.** 새내기 윤정하(사학 2013)양은 춘계답사 일정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조선 유생의 나날’이란 주제 아래 3박 4일 동안 자운서원, 도산서원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유적지를 둘러볼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9만원인 답사비가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직 한 학기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다음 학기에 있을 추계답사가 기대된다.

#2. **2016년.** 새내기 신동혁(사학 2016)군은 춘계답사 일정표를 보고 체계적인 구성에 만족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웠다. 2박 3일 동안 경주에 있는 유적지들을 위주로 둘러볼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11만원이 넘는 답사 비용도 내심 부담됐다. 선배들 말에 의하면 최근 사학과 자율예산이 급감해 학생 개인의 비용 부담이 늘었다고 한다. 사학과 16학번 대표로서 지난 4월 새내기 울동제 발언 시간에 ‘자율예산 문제로 저희가 추계답사를 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외쳐 봤지만, 아직 달라진 건 없다.

2013년 사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4개 이상의 도를 거치는 3박 4일 춘계답사를 9만원에 다녀왔지만,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경주에만 머무르는 2박 3일의 일정을 11만 5천원의 비용을 내고 가야했다. 3년에 불과한 시간차를 두고 있음에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2013년 이후 급감한 사학과 자율예산’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사학과 자율예산과 결산 금액의 변동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에 2,966만 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던 자율예산이 2014년엔 1,731만 원으로 급감했다. 1년 만에 약 1,200만 원이 줄어든 것이다. 2014년에 양 캠퍼스 미래정책위원장과 단과대학 학장들의 회의 결과, 단과대에 분배되는 자율운영예산을 5%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당시 2014학년도에 배정된 전체 자율예산 총액 304억 원에서 약 17억 원 가량 감축된 바 있다. 언뜻 보면 2014년에도 결산 금액이 자율예산보다 적어 넉넉하게 운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본부가 5월 중 110만 원 상당의 자율예산을 추가로 조정할 것을 각 단과대학에 의뢰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과 결산 금액이 같았다.

이후 2015년부터 학과 별로 평가 지표 순위에 따라 추가 예산을 지급하는 O&P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O&P 제도가 시행된 첫 해에 사학과가 자율예산으로 받



	2013년	2016년
주제	조선 유생의 나날 : 일상과 교육으로 살펴본 유생의 삶	신라의 달, 경주를 비추다.
1일	09:00 학교 출발 11:00 경기도 파주 자운서원 16:30 여주 혁립사 18:00 강원도 원주 간현	08:30 학교 출발 15:30~16:30 국립 경주 박물관 16:40~17:30 오름 17:40~19:00 월성 21:00 학술 프로그램
2일	11:00 경상북도 영주 소수서원 14:00 영주 부석사 16:00 영주 순흥, 읍내리 벽화 고분 17:30 영주 한국 선비	09:00~10:15 불국사 10:50~11:20 감은사지 11:30~12:45 문무왕릉 14:00~14:30 분황사 14:35~15:30 황룡사지 15:40~17:00 대릉원 18:20~19:20 안압지 21:00~ 레크레이션
3일	09:30 영주 순흥향교 13:00 안동 국학진흥원 14:00 안동 도산서원 17:30 예천 삼강주막	09:30~10:10 김유신 장군묘 10:20~11:20 무열왕릉, 서악동 고분군 14:00~14:40 임당동 고분군 19:00 학교 도착
4일	10:00 문경새재, 옛길 박물관 16:00 충청북도 충주 탄금대 19:00 일정 종료 및 뒤풀이	-
비용	9만원	11만 5천원

은 금액은 572만 원에 불과했다. 문과대학 행정실 관계자는 “예산은 학기 단위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572만 원으로 1년

비해 비교적 더 많은 금액을 추가예산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2015년도 결산이 2014년도의 예산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미래정책원 이승민 계장은 “자율예산이 줄어든 것은 제도의 변화에 의한 것이며, 모든 단과대학에게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사학과만 특별한 불이익을 겪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자율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학과에 계한 해당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별교비장학을 제외한 자율예산 총액은 서울캠퍼스 전체에서 8% 가량 삭감됐으며, 특히 경영대학·이과대학과 의학·예술계열을 제외한 대부분 단과대가 10% 이상 삭감됐다. 그 중 사학과가 포함된 문과대학 고정 사업비 삭감 비율은 14%다. 이밖에 법과대학과 생활과학대학은 각각 26%, 16%씩 삭감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일 사학과 자율예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사라진 추가예산의 행방을 공개수배 합니다! 사학과 2학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대자보에는 “올해는 작년보다 170만 원 정도 더 많은 약 740만 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춘계답사로 이미 46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상황”이라며 “최근 사학과는 1학기는 ‘자율예산’으로, 2학기는 O&P와 부총장 특

별 교부금으로 구성된 ‘추가예산’으로 생활해 왔는데, 올해 등록금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O&P가 시행되지 않을뿐더러 부총장 특별 교부금 1억을 제외하고는 추가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추계답사가 예정된 사학과 학우들의 2학기를 보장하라”고 본부에 요구했다.

대자보를 쓴 사학과 최은혜(사학 2013) 회장은 “추가예산이 지급되지 않아 추계답사를 못 가게 된다면, 학과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이번엔 정말 추계답사를 못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추가예산을 지급하는 O&P 제도는 올해도 시행된다”며 “다만, 부총장 교부금이 3억에서 ‘1억’으로, 서울캠퍼스 O&P 지원 금액이 3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5억 줄어 올해 단과대학으로 지급되는 추가 예산 금액은 총 1억 5천만 원이다”라고 말했다. “줄어든 5억은 다양한 사업들로 배분됐고, 단과대학의 자율예산으로 배부되는 추가예산 금액은 줄었지만, 학생들에 대한 지원 경비 예산은 작년 결산대비 24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래정책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지원경비 중 교내 장학금이 18억, 실험실습비가 6억, 학생지원비가 8억 늘은 반면, 기타 학생 경비 10억이 줄어 올해 학생 경비는 작년 결산대비 총 24억 원 정도 높게 예산이 책정됐다. 교내 장학금 예산 확대 비중이 유달리 높은 이유에 대해 이 계장은 “국가장학금 2차 유형 지원 기준 충족과 국제화 연수, 재학생 수 증가, 외국인 학생 장학금 증가 때문”이고, “O&P제도 지원 금액이 줄은 대신 교육대학원과 체육대학 실습, 외국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확대돼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답사 비용은 자율예산이고, O&P 평가 점수가 낮으면 추가 예산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문과대 안에서 자구 노력 등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학과가 추계답사를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학과 박윤재 학과장은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문제제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번 학기가 마무리 되면, 문과대 행정실과 협의해 본부 측에 공식적인 질의를 할 예정”이라며 “만약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올 경우, 그때 다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광고기획 및 제작 카탈로그 포스터 부동산전단 신문제작 대학학보

구청소식지 사보 출판 간행물 제작 CI·BI ☎751-5939